

**동네상권발전소 각지뉴스 보고서 Vol. 4**  
**온라인 데이터틀 통해 본 팔달산과 팔달문:**  
**도시와 자연, 시간과 세대를 잇는 새로운 흐름**

---

## 소개

이번 동네상권 발전소 각지뉴스 보고서 Vol. 4는 팔달산과 팔달문을 중심으로, 도심 속 자연(팔달산)과 역사문화 공간(팔달문)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가능성을 온라인 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함. 팔달산은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형 산책 코스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실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게 ‘어반 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장소로 주목 받고 있음. 팔달문은 중장년층에게는 7080 감성의 추억 공간으로, MZ세대에게는 레트로와 뉴트로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 문화의 무대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팔달산·팔달문이 온·오프라인 상에서 가진 잠재력과 영향력을 검토하여,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여러 세대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실행 가능성도 함께 분석함.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팔달산,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팔달문 사례를 통해, 지역 상권이 계절적·세대적 한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봄.

네이버 데이터랩, SomeTrend 등에서 수집한 검색어 트렌드와 소셜 언급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역 상권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함.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자연과 역사를 결합한 새로운 도심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실천 과제 제시가 핵심 목표임.

## 대상 독자

본 보고서는 지역 상권 발전과 도시 문화 활성화에 관심 있는 상인, 연구자, 공공기관 종사자, 정책 입안자를 주요 대상으로 함. 팔달산과 팔달문 중심의 데이터 분석과 사례 연구를 통해 상권 활성화 및 도시 문화 협력 모델 구축에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찰을 제시함.

### 세대 간 참여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 팔달산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세대에  
게 인기 있는 자연 공간

### 온라인 데이터 분석

지역 트렌드와 상호작용에  
대한 통찰력 제공

### 팔달문

레트로 경험을 제공하는 역사  
적 문화 공간

# 서론

본 보고서는 팔달산과 팔달문 일대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상권과의 협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됨. 팔달산은 도심 속 자연 공간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산책·여가 활동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으며, 팔달문은 과거 7080 문화의 기억과 최근 뉴트로 트렌드가 공존하는 장소로 주목 받고 있음. 그러나 계절적 편차와 온라인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방문객 수와 온라인 화제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 발견됨. 이에 본 보고서는 팔달산·팔달문을 찾는 세대별·시기별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이 지역 상권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팔달산은 실버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이용층이 “일상 속 자연”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팔달문은 중장년층의 추억 공간이면서 동시에 MZ세대의 레트로·뉴트로 문화를 품을 잠재력을 지님. 이들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과의 협력, 보행 동선 개선, 온라인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두 공간의 온라인 데이터와 트렌드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연계 모델을 제안하고자 함.



## 데이터 범위와 수집 방법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수집함. 네이버 DataLab API와 SomeTrend를 통해 ‘팔달산’, ‘팔달문’, ‘장안문’, ‘7080’, ‘산책’, ‘뉴트로’ 등 주요 키워드 검색 지수를 연령대 및 시간대별로 수집함.

팔달산 산책로 현황 및 수원 남문 일대(팔달문) 상권 데이터는 현장 답사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함.

## 분석 방법

### 검색 트렌드 분석

네이버 검색 지수를 통해 팔달산과 팔달문에 대한 세대별 관심도 변화를 파악함. ‘7080’, ‘뉴트로’ 등 세대 정서 및 문화 코드를 나타내는 키워드의 등장 빈도를 확인함.

팔달산과 팔달문 방문객이 어떤 세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분화함. 중장년층 vs MZ세대의 검색·소셜 언급량을 비교해 맞춤형 접근 전략을 제안함.

### 상권 연계 방안 도출

데이터로 파악된 관심 키워드를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로 전환함. 보행 동선 개선, 온라인 마케팅, 팝업 스토어, 뉴트로 체험 행사 등 실질적 실행 과제를 도출함.

---

## 목차

1. 팔달산과 팔달문 개괄
2. 데이터 분석으로 본 팔달산 트렌드 인사이트
3. 딥 다이브 인 깎지 뉴스
4. 데이터 분석으로 본 팔달문 트렌드 인사이트
5. 딥 다이브 인 깎지 뉴스
6. 데이터로 찾아낸 상권의 핵심 가치와 가능성



## 팔달산과 팔달문 개괄



팔달산은 수원의 도심에 위치한 낮은 산으로, 자연 친화적 생활 공간이자 지역 주민의 산책 코스로 자리 잡고 있음. 행궁동과 경기도청옛청사 주변을 연결하며,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도시 구조의 일부라는 역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음. 최근에는 실버세대를 비롯해 ‘어반 네이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도심 속 자연과 일상의 결합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음.

팔달문은 수원의 대표적인 문화·역사 자원으로, ‘남문’이라는 별칭과 함께 오래도록 지역의 중심 상권과 생활 문화의 상징이 되어옴. 장안문(북문) 일대가 새롭게 각광받는 동안, 팔달문은 중장년층의 추억과 레트로 감성을 품은 공간으로써 고유한 가치를 이어가고 있음.

## 팔달산과 팔달문의 일반 인식

팔달산은 일상적인 산책 코스와 계절별(벚꽃, 단풍) 명소로 알려져 있으나, 주로 지역 주민과 실버 세대가 이용하는 경향이 강함. 화려한 행궁동 메인 상권과는 다소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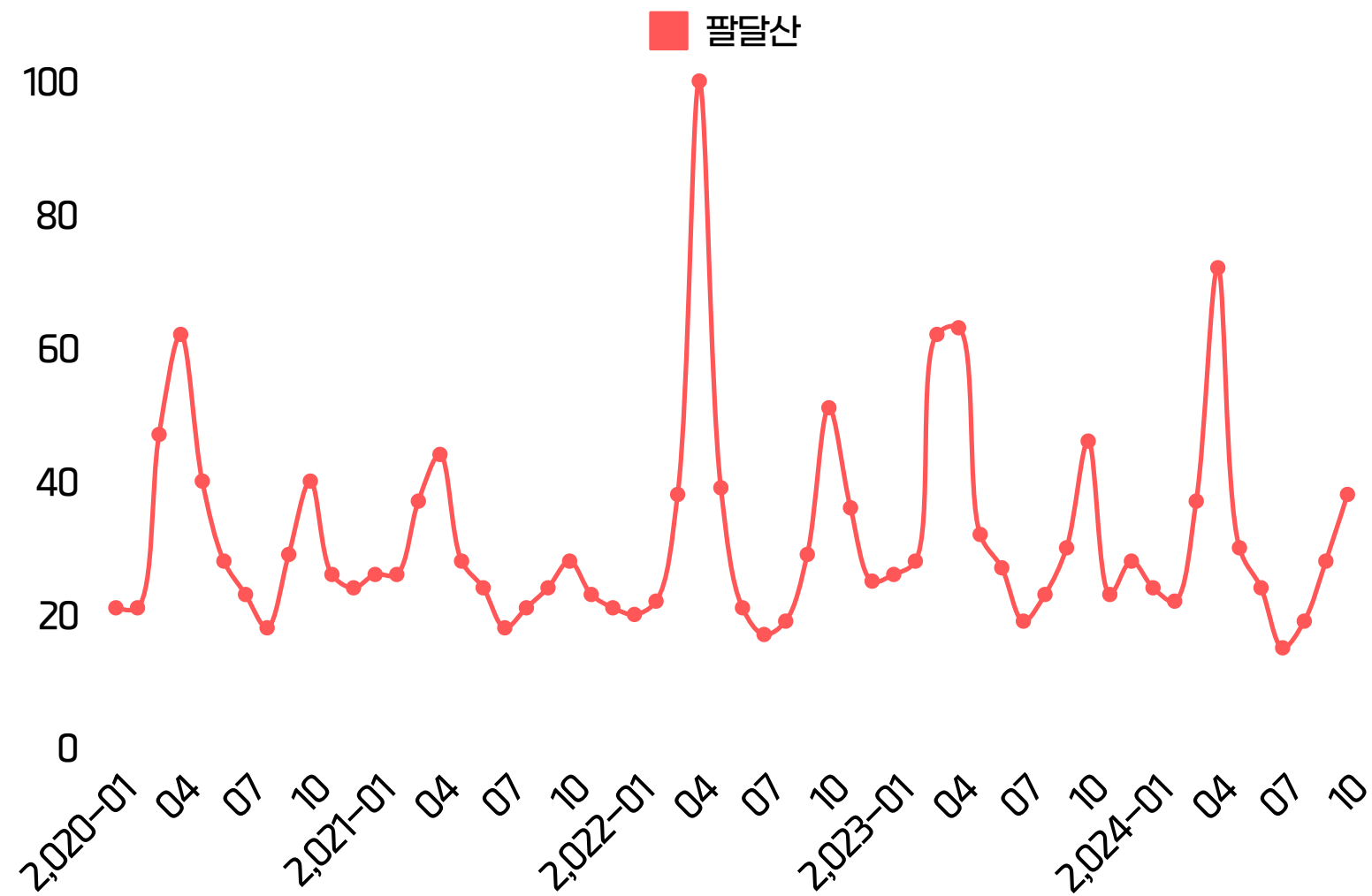
팔달문 일대는 장안문에 비해 젊은 층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중장년층에게는 7080 시대의 청춘 문화를 상기시키는 공간으로써 의미를 지님. SNS상에서 레트로·뉴트로 콘텐츠와 연결될 경우, 세대 간 교차 관심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음. 주말이나 특정 문화 이벤트가 열리는 시기에 방문객이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며, 평일에는 상권이 한산해지는 패턴이 공유됨.

## 팔달산과 팔달문의 성장 가능성

팔달산은 실버세대와 지역 주민이 이미 밀도 있게 활용하고 있는 자연 공간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을 결합할 경우 일상 속 자연의 가치를 확장할 가능성이 높음. 계절적 비수기에도 산책로와 근처 상권을 연결하는 보행 동선 개선을 통해, 침체 구간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팔달문은 지역 상인과 방문객 모두에게 친숙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7080 레트로 감성을 뉴트로 형식으로 재현하거나, SNS 바이럴을 활용한 테마 행사를 기획할 경우,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지역 상권의 이미지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 이는 중장년층의 꾸준한 관심과 젊은 층의 새로움에 대한 호기심을 동시에 충족시킬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음.

# 데이터 분석으로 본 팔달산 트렌드 인사이트



데이터 출처: 팔달산\_검색지수\_202001-202410\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 1. 주요 키워드 분석: 팔달산 벚꽃과 단풍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일상의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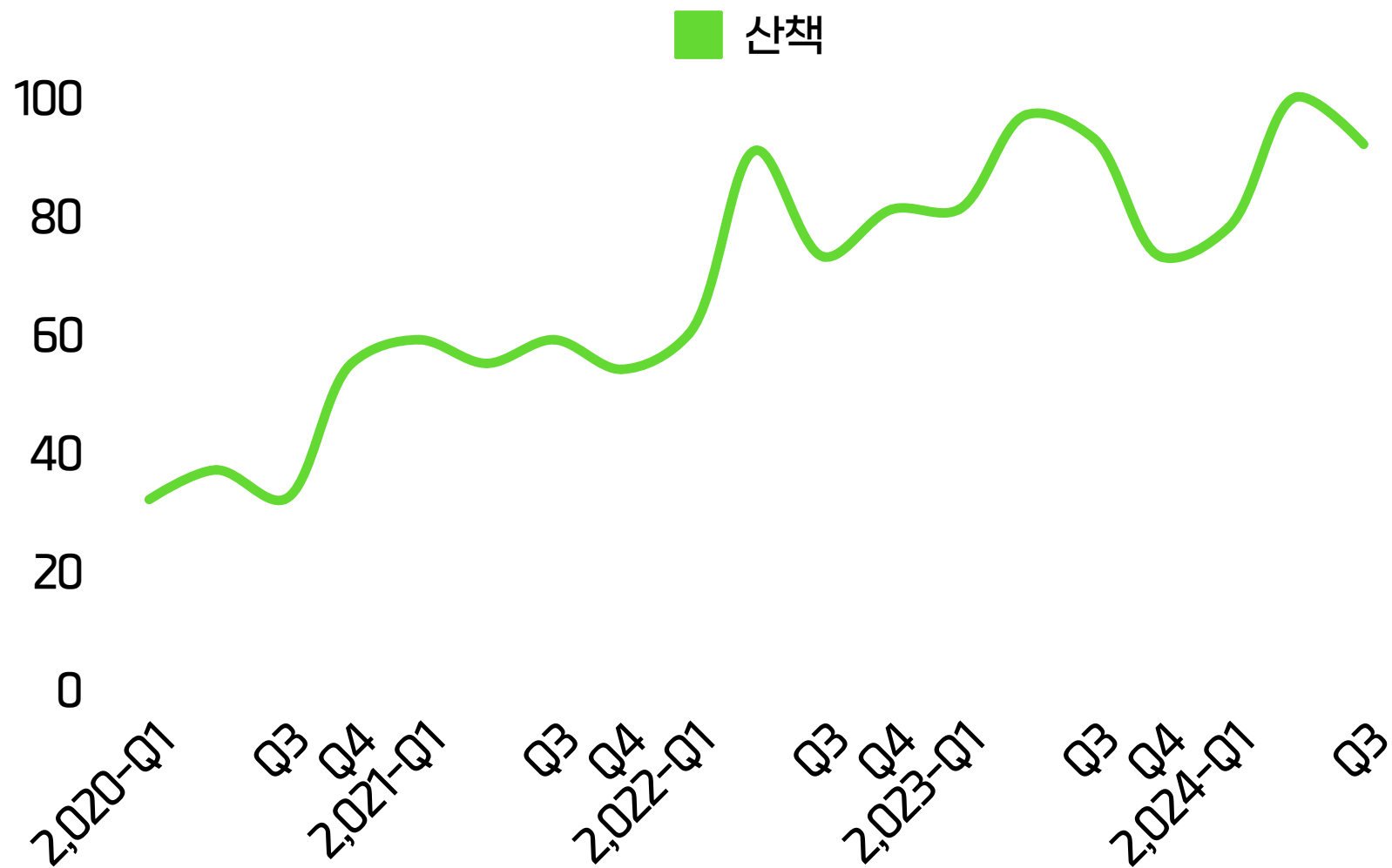
네이버 DataLab(2020년 1월~2024년 10월)에서 '팔달산' 검색 지수를 살펴보면, 매년 4월과 10월에 현저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계절적 변동이 확인됨.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으로 방문객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구조임. 그러나 이 두 계절이 지나고 나면 검색량이 크게 하락해, 팔달산이 '계절형 명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럼에도 비수기라고 여겨지는 시기에 검색 지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점은 주목할 만함. 이는 팔달산이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형 자연'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함. 주변 주차장과 버스 정류장이 한산한 현실은, 방문객의 상당수가 도보로 접근하는 근거리 주민이라는 사실과 맞물림. 특히 중장년층과 실버세대가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산책과 가벼운 운동을 위해 이곳을 찾는 모습이 자주 목격됨.

팔달산이 이렇게 '계절성'과 '일상성'을 동시에 지니는 배경에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도시 중심지로서의 정체성과 연관됨. 과거에는 역사적 핵심 공간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생활 속 자연공원으로 재해석되고 있음. 반면, 몇 해 전 경기도청이 옛청사에서 이전하면서, 팔달산 인근 상권은 중심지 활기를 잃어 침체기에 돌입했음. 행궁동 안에서도 상권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팔달산이 가진 '생활형 공원'의 잠재력은 더욱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음.

계절적 피크와 비수기 유지량을 종합하면, 팔달산은 도시에서 사람들이 사시사철 활용하는 핵심 거점임을 알 수 있음. 봄-가을 관광객에게는 화려한 계절 이벤트를 제공하고, 여타 시기에는 인근 주민에게 꾸준한 산책로와 운동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는 계절적 접근만으로는 충분치 않음을 의미하며, 오히려 이러한 일상적 이용을 바탕으로 침체된 주변 상권을 회복시키는 '연결축'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함.

# 데이터 분석으로 본 팔달산 트렌드 인사이트



데이터 출처: 산책\_60대이상\_검색지수\_2020Q1-2024Q3\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 2. 연관 검색 데이터 분석: 늘어나는 '산책' 관심과 팔달산의 자연문화 공간화

'산책'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검색량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가 포착됨. 2020년 1분기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중장년층과 실버세대 사이에서 산책을 일상적·지속적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확연해졌음. 이는 단순히 취미로서의 '산책'이 아니라, 건강 관리와 정신적 균형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냄. '산책' 관련 소셜 연관어도 '걷기', '일상', '운동', '마음' 이 두드러지게 등장함. 이는 산책이 단순한 야외활동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웰빙을 아우르는 행위라는 인식이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의미함. 이처럼 일상 속에서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흐름에서 팔달산은 이미 주민들에게 최적의 산책 코스로 알려진 공간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함.

팔달산이 가진 매력은 무엇보다도 '생활 밀착형'이라는 데에 있음. 해발고도가 낮고 도보 접근성이 뛰어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쉽게 오갈 수 있음. 현장 조사를 통해 주변 버스 정류장이나 주차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 포착되는 이유도, 실제 거주지에서부터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임. 이러한 근거리 이용 형태는 중장년층·실버세대가 부담 없이 꾸준히 찾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 이는 팔달산이 이미 지역에서 검증된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며, 한발 더 나아가면 산책의 확대 해석을 통해 더욱 폭넓은 사람들에게 공감 받는 자연문화 브랜드로 발전할 여지를 보여줌.

'산책' 키워드 분석에서 나타난 중장년층 이상의 높은 관심도와, 팔달산이 지닌 생활 밀착형 환경은 서로 밀접한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 데이터 인사이트는 팔달산이 단순 관광지를 넘어 '건강'과 '힐링'을 포괄하는 도심 속 자연문화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지로 브랜드화 될 잠재력을 확인하게 함. 그리고 이 브랜드화는 더 많은 연령층에게도 매력적인 가치를 어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 데이터 분석으로 본 팔달산 트렌드 인사이트



데이터 출처: 팔달산 보행전용 산책로\_현장답사 + 네이버 지도

## 3. 온-오프라인 맵핑 데이터 분석: 팔달산과 행궁동의 연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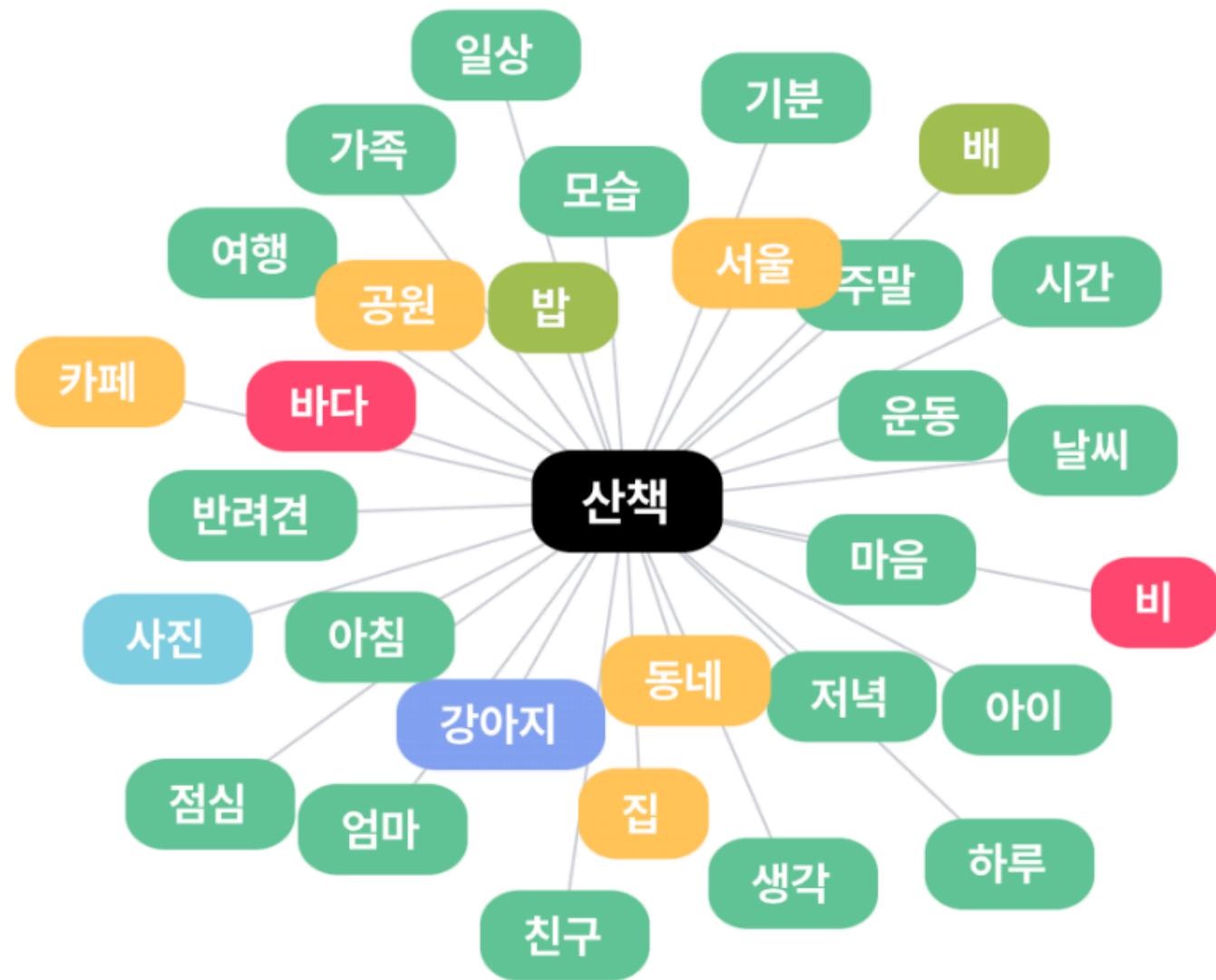
행궁동 하면 보통 ‘젊고 트렌디한 메인 상권’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런 화려함이 오히려 실버세대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때 팔달산은 보다 여유롭고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대안적 선택지가 될 수 있음. 실제로 팔달산은 계절 관광에 집중된 단발성 명소를 넘어, 아침저녁마다 산책로나 운동 코스로 활용되는 일상 공간으로서 역량을 입증해 왔음.

팔달산의 핵심 가치는 단순히 자연 풍광에 있지 않음. 온·오프라인 맵핑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팔달산 산책로는 동쪽으로 화성행궁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남쪽 경기도청옛청사 방면으로는 물리적 단절이 뚜렷하게 나타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탓에, 팔달산에서 시작된 경험을 경기도청옛청사 주변 상권까지 확장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보행 중심 동선이 정비된다면, 팔달산—경기도청옛청사—행궁동 메인 상권으로 이어지는 유기적 연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연결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도 있음. 팔달산에서는 걷기 행사나 산책 모임 등을 열어 실버세대 중심의 운동·커뮤니티 문화를 확산시키고, 동시에 젊은 세대에게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힐링 코스나 트렌디한 러닝 코스를 제공할 수 있음. 여기에 경기도청옛청사 주변 상권으로 이동해 건강 먹거리 체험이나 지역 특산물 플리마켓을 결합한다면, 일상 속 자연 경험이 한층 풍부한 도시 문화로 확장될 가능성이 큼. 팔달산은 단순히 행궁동을 보완하는 부차적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도시·자연을 잇는 중심축으로 재발견될 수 있음. 차량 중심에서 벗어난 보행 친화적 환경과 함께, 나이·취향을 초월해 서로 다른 관심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더해진다면, 팔달산은 도시 일상과 관광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이야기의 무대를 제공할 것임.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팔달산은 누구에게나 열린 자연문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대표 브랜드로 거듭날 잠재력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 딥 다이브 깍지뉴스



## 1. 팔달산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도시-자연의 길: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

**왜 지금,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인가**  
 최근 ‘산책’ 키워드가 SNS와 검색 지표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팔달산은 도심 속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일상적 건강 활동을 실천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그저 ‘산책하기 좋은 산’ 이상의 의미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함. 이 작은 산을 매개로 도시와 자연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일상 패턴을 깍지뉴스는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이라 명명함.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은 기존에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깍지뉴스가 처음으로 제안하는 방식임. 도시재생이나 전원생활 같은 단순 범주로는 포착할 수 없었던,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을 일상화하고, 커뮤니티-문화-건강이 유기적으로 융합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지향함.

**새로운 개념을 향한 의구심: “정말 가능할까?”**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은 기존 검색이나 문헌에서 뚜렷한 정의를 찾기 어려운 만큼, “그냥 마케팅 용어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하기도 함. 깍지뉴스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분석과 행궁동 내부에서의 현장 조사, 그리고 팔달산을 통해 이미 실천되고 있는 주민 라이프스타일 사례를 함께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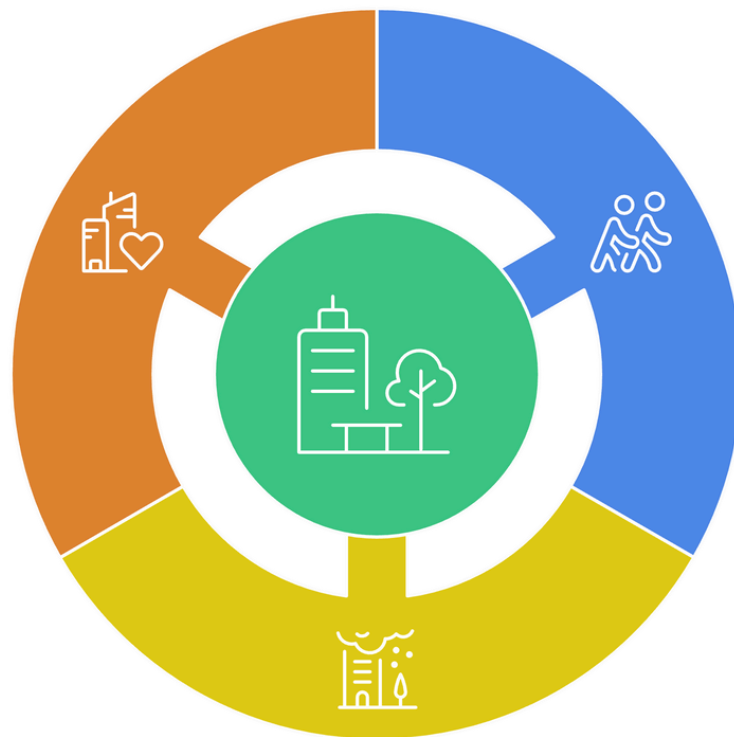
- **데이터 관점:** ‘산책’ 연관어를 분석하면 ‘일상’, ‘반려견’, ‘가족’, ‘마음’ 등 도시민들이 자연을 단발적 관광이 아닌 지속적 생활 행위로 받아들이는 흐름이 확인됨.
- **현장 관점:** 팔달산 일대는 경사가 완만하고 도보 접근성이 높아, 아침저녁으로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실버세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주변 상권과 화성행궁, 경기도청 옛청사 등과의 연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는 점이 내부 시선에서 부각됨.

즉, 현장성과 데이터가 함께 증명해주고 있는 만큼,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은 허상이나 유행어가 아니라 도시민이 원하는 자연 중심적 생활을 구체화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딥 다이브 깍지뉴스

## 2.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 ‘수원 행궁동’에서 시작된 자생적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가치**  
주민 고유의  
생활 양식에 기반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속 산책·운동**  
다양한 세대가  
자연 속에서 즐기는 활  
동적인 라이프스타일

**도시+자연+문화의 융합**  
역사·문화시설,  
상권, 주거, 자연이  
유기적으로 연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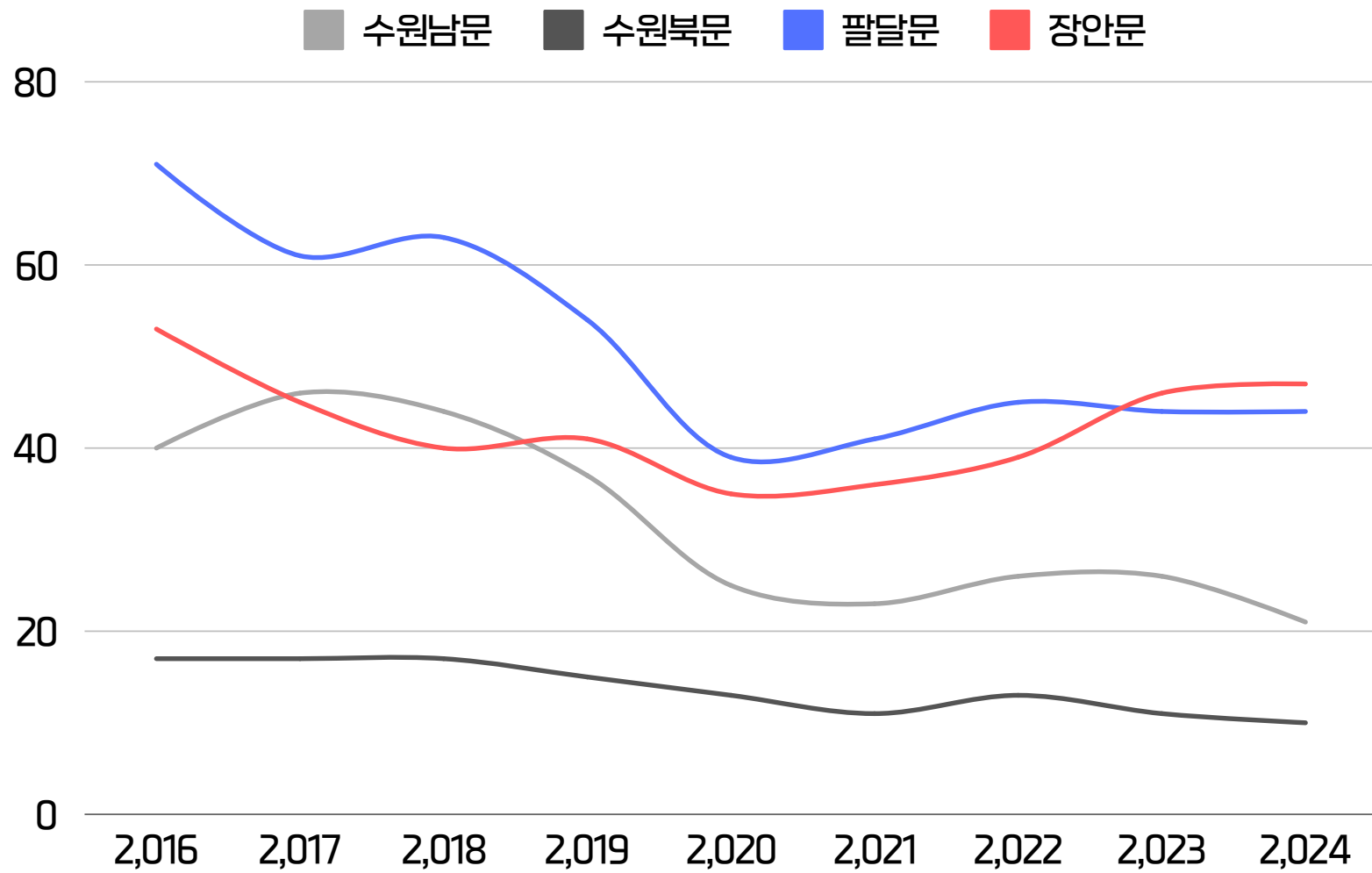
### ‘수원 행궁동’에서 시작된 자생적 라이프스타일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은 전적으로 새롭게 발명된 것이 아니라, 수원 행궁동과 팔달산을 중심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던 생활 문화를 깍지뉴스가 체계적으로 정의한 것에 가까움. 행궁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팔달산에서 산책·운동을 해오며, 자연과 역사·문화(화성 행궁, 공방거리, 경기도청옛청사)가 어우러지는 독특한 생활 패턴을 형성해옴. 그동안 이 라이프스타일에 뚜렷한 이름이 없었기에, 외부인이 “수원은 산이 낮고, 걷기 좋은 곳” 정도로 인식하곤 했음. 이제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틀이 생김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생활방식을 수원에서부터 공식화하게 됨.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특정 기관이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홍보한 개념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공유해온 습관과 지역 특성이 결합해 탄생한 것이기에 한층 설득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새로운 길을 여는, 팔달산발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은 기존에 존재하던 ‘도심 속 자연활용’ 담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삶 전반을 자연과 결합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깍지뉴스가 제안하는 독창적 아이디어임. 동시에, 수원 행궁동과 팔달산 주변 주민들이 이미 오래도록 구현해온 ‘자생적’ 생활 문화를 이론화한 것이기에 높은 현실성과 시의성을 지님. 처음 듣는 낯선 용어일 수 있으나, 실제 데이터를 통해 일상·가족·반려동물·건강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 욕구가 팔달산이라는 공간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또한, 이 공간이 단순 산책로를 넘어 도시문화·공공자원·상권과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와 자연의 경계를 허무는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큼. 결국, 팔달산발(發)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은 수원에서 비롯된 도시생활의 혁신 모델이자, “우리가 꿈꾸는 도시 속 자연”을 한층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깍지뉴스만의 시도라 할 수 있음.

# 데이터 분석으로 본 팔달문 트렌드 인사이트



데이터 출처: 수원남문-수원북문-팔달문-장안문\_전체 검색지수 패턴  
\_201601-202412\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 1. 주요 키워드 분석: 수원남문·북문에서 팔달문·장안문 명칭 변화가 보여주는 흐름

수원에는 오랫동안 ‘남문’, ‘북문’이라는 명칭이 일상적으로 쓰여 왔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검색 지수를 보면, ‘수원남문’과 ‘수원북문’ 대신 ‘팔달문(남문)’, ‘장안문(북문)’이라는 본래 이름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음. 이는 단순히 단어 사용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넘어, 도시 인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할 수 있음. 과거에는 ‘남문’, ‘북문’처럼 일상적이고 단순한 위치 개념이 널리 사용됨. 전국 여러 지역에서 ‘남문·북문’이 공통적으로 쓰이기도 하여, 수원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을 강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원 화성과 함께 본래 명칭인 ‘팔달문’, ‘장안문’이 강조되면서, 도시의 역사문화적 자산을 재조명하려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음.

### 데이터로 본 변곡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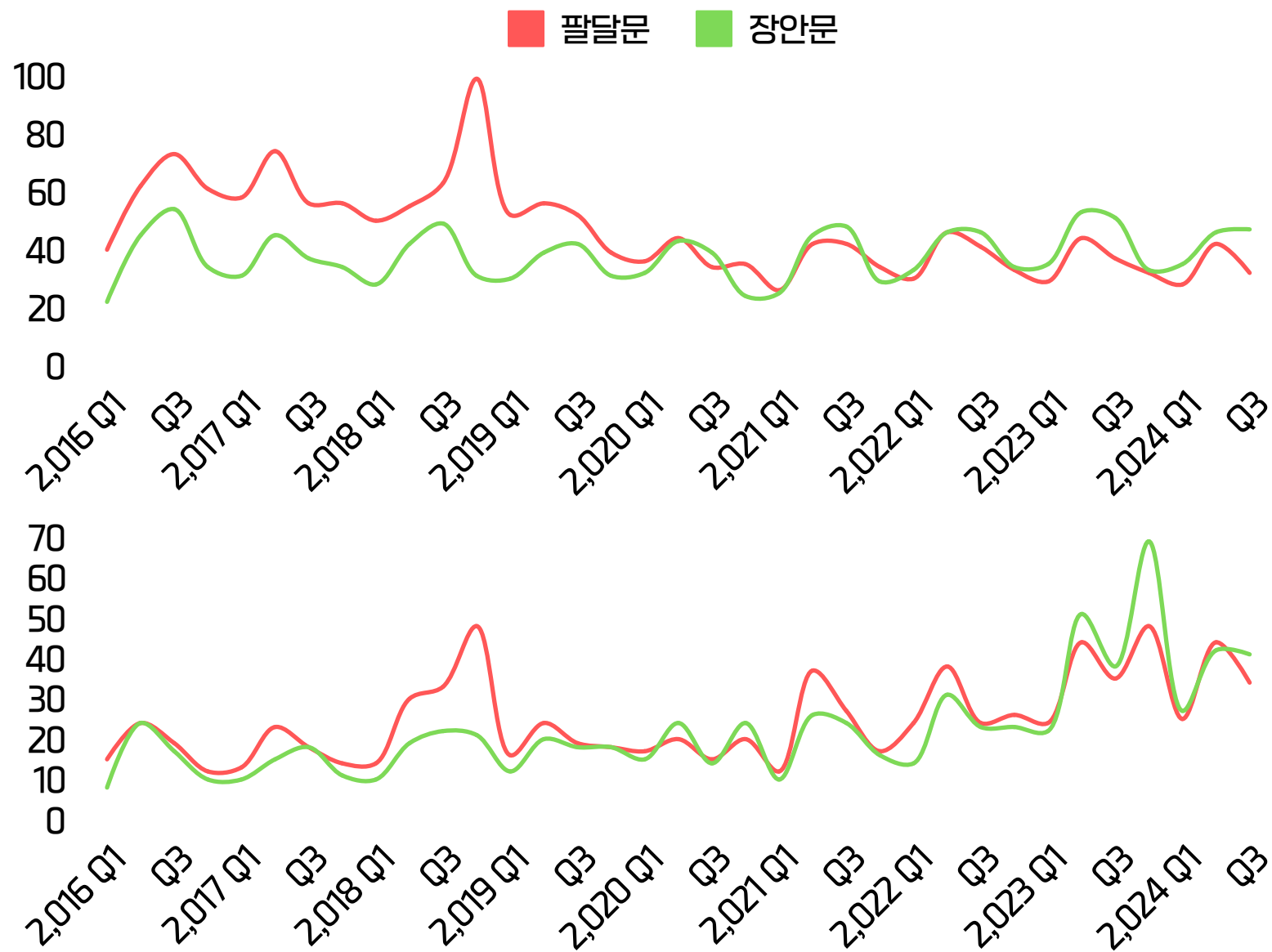
2016~2017년까지는 ‘수원남문’이 ‘팔달문’보다 검색량이 높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2018년 이후 ‘팔달문’ 키워드가 서서히 우위를 점하기 시작해 2020년 전후로 격차가 더욱 벌어짐. ‘수원북문’ 역시 같은 시기에 하향세를 보이는 반면, ‘장안문’ 검색 지수는 2020년 전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임. 이는 남문·북문이라는 일상적 지명이 점점 팔달문·장안문이라는 정식 명칭에 자리를 내주고 있음을 보여줌.

### 명칭 변화가 의미하는 것

도시가 시간이 흐르면서 역사를 복원·재인식하는 과정에서 명칭 역시 달라지고 있음. “남문·북문”에서 “팔달문·장안문”으로 옮겨가는 것은, 수원이라는 도시가 점차 문화관광 도시로 브랜딩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상징적 지표임. 동시에, 오래된 토박이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남문’, ‘북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만, 새로운 세대나 관광객, 외부인에게는 팔달문·장안문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통용됨. 이 간극은 ‘옛것 vs 새것’의 단순 대립이 아니라, 도시가 꺾꺾이 쌓아온 시간의 다층성을 드러냄.



# 데이터 분석으로 본 팔달문 트렌드 인사이트



데이터 출처: (위)팔달문-장안문\_검색지수\_2030세대\_(아래)팔달문-장안문\_검색지수\_40대 이상  
\_201601-202410\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 2. 검색 데이터 심층 분석: 팔달문과 장안문, 그리고 세대의 발걸음

### 2030 검색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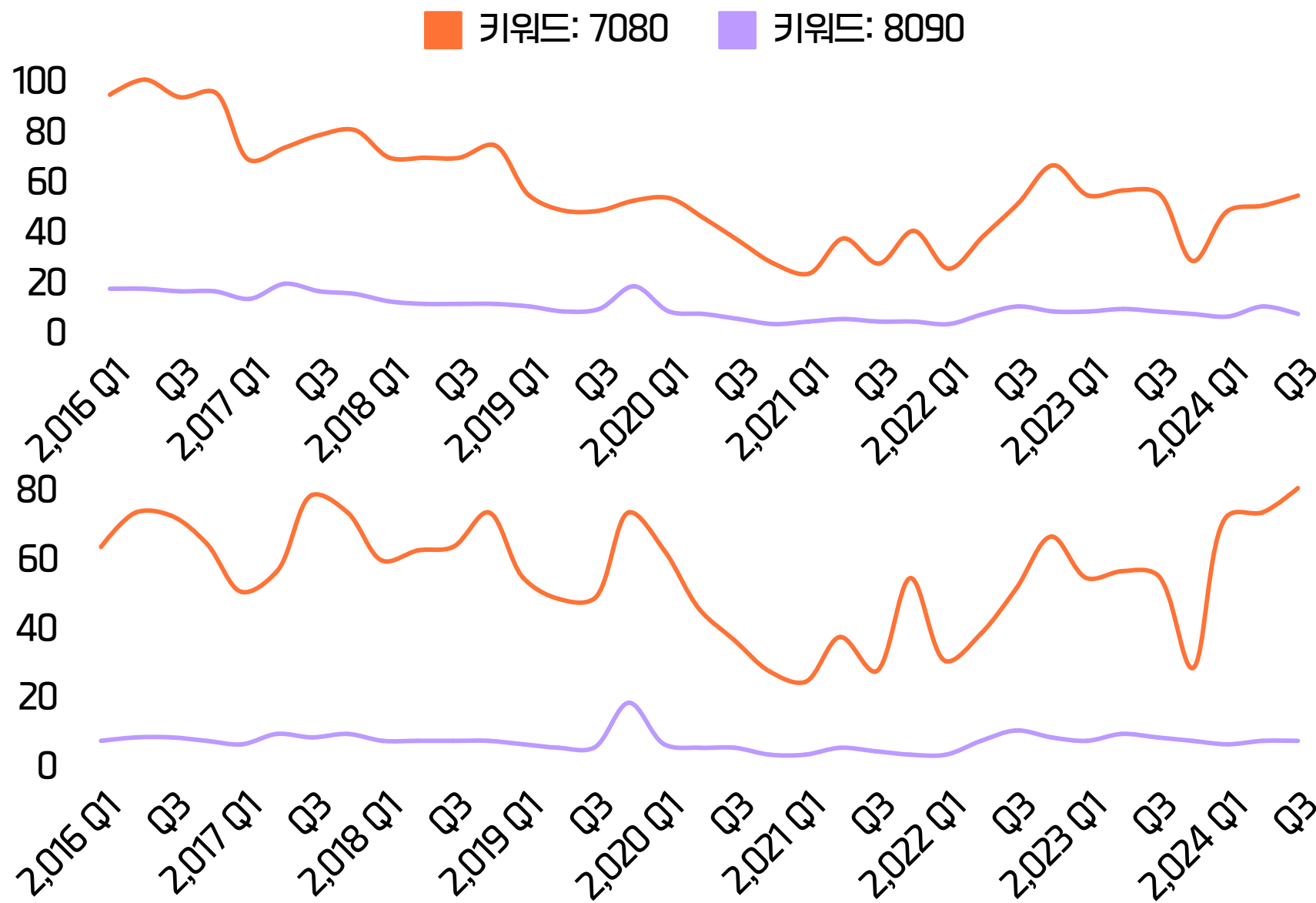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장안문의 검색량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팔달문과 격차를 점차 좁히더니, 2022~2023년을 거치며 오히려 앞서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항공동 일대가 젊은 층에게 새로운 문화·SNS ‘핫플레이스’로 주목받은 영향이 큼. 카페·레스토랑·포토존 등이 늘어나면서, “장안문 = 트렌디”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결과로 보임. 2030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남. 과거에는 팔달문이 전반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부터 장안문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늘어, 팔달문의 검색 지수를 뛰어넘는 시점이 많아지고 있음. 젊은 층에게 팔달문은 다소 ‘옛것’ 혹은 ‘부모님 세대가 즐겨 찾는 곳’으로 인식되는 반면, 장안문은 “요즘 감성”을 담은 공간으로 각인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함.

### 40대 이상 검색지수

반면 40대 이상에서는 팔달문에 대한 검색량이 최근 오히려 상승하거나, 장안문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임. 이는 팔달문이 이 세대에게 단순 관광지가 아닌 추억과 향수를 담은 장소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임. 특히 1970~80년대 ‘7080 세대’가 청춘 시절을 보냈던 곳이라는 정서적 연결고리가 커, 팔달문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됨.

팔달문과 장안문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서로 다른 세대와 문화를 포괄하고 있음. 장안문이 현재의 트렌드를 대표한다면, 팔달문은 오래된 기억과 레트로 감성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대조적이지만 상호보완적인 위치를 갖춤. 도시라는 공간은 때로 세대별로 전혀 다른 의미를 뿜 수 있다는 사실이, 팔달문과 장안문에 대한 검색 데이터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

# 데이터 분석으로 본 팔달문 트렌드 인사이트



데이터 출처: (위)7080-8090\_전체 검색지수\_(아래)7080-8090\_검색지수\_40대 이상  
\_201601-202410\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 3. 검색 데이터 심층 분석: 팔달문에서 마주친 청년의 기억

‘7080’ 키워드는 2016~2018년경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이다가 한동안 하락세를 탔으나, 2020년 전후로 레트로-뉴트로 열풍이 일면서 다시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8090’ 키워드가 비슷한 기간 동안 낮은 수준에서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7080은 강력한 문화 코드로써 여전히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40대 이상 데이터**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7080’ 키워드가 특히 많이 검색되며, 최근까지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이는 중장년층이 ‘7080’이라는 단어를 통해 자신들의 청년 문화를 자발적으로 추억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재소비하려는 욕구가 강함을 의미함. 반면 ‘8090’ 키워드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7080 시대의 독특한 감성과 음악·패션·문화 요소가 이들에게 더 강력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함.

**팔달문과 7080의 연계**  
팔달문은 수원 구도심의 중심지로서, 1970~80년대 ‘청춘 문화’의 상징적 무대였음. 당시 젊은 세대가 통기타·포크송·음악다방·극장 등에 열광하며 문화를 꽃피웠던 장소가 팔달문을 중심으로 형성됨. 이러한 역사적 맥락 때문에, 중·장년층은 팔달문을 오가며 7080 시대의 향수를 강렬하게 느끼고, 현재에도 그 감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음.

하지만 지금의 팔달문 일대에서는 과거 7080 시대의 흔적을 직접 체험하기가 쉽지 않음. 상권 변화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음악다방이나 극장, 다방 문화가 사라지면서, 그 시절을 추억하는 이들에게 구체적 공간이나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 이는 “7080 키워드”가 여전히 높은 관심도를 보이는 현실과 대조적이어서, 아쉬움으로 남는 지점이기도 함.

# 딥 다이브 각지뉴스



## 1. 당신의 이야기가 만드는 남문의 내일

팔달문은 7080 시대를 대표하던 음악다방과 극장, 청바지·통기타 문화가 함께 꽃피었던 공간이었음에도, 지금은 그러한 기억을 직접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상권 재편과 함께 과거의 다방·극장이 사라졌고, 중장년층이 청춘을 보냈던 그 시절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임. 그러나 검색 데이터와 중장년층의 꾸준한 관심이 보여주듯, 팔달문을 향한 그리움과 향수는 여전히 강력한 문화적 잠재력으로 남아 있음.

###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문화적 재해석'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부담이 됨. 대신 팔달문 일대가 가진 7080 시대의 문화적 코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뉴트로(Newtro) 방식을 주목.

- **공공 공간 활용:** 통기타·청바지·음악다방·극장 등 7080의 대표적 요소를 테마로 한 팝업스토어나 전시, 주말 이벤트 등을 공공장소에서 열면, 상인들의 일상 영업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에게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음.
- **체험형 콘텐츠:** LP·영화 포스터 플리마켓, 부모 세대와 함께하는 뉴트로 패션 체험, 음악다방 콘셉트의 셀프 스튜디오 등이 좋은 예임. 7080 세대에게는 과거를 생생히 떠올릴 기회를, 젊은 층에게는 색다른 문화 체험을 제공함.

###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만나는 지점, 디지털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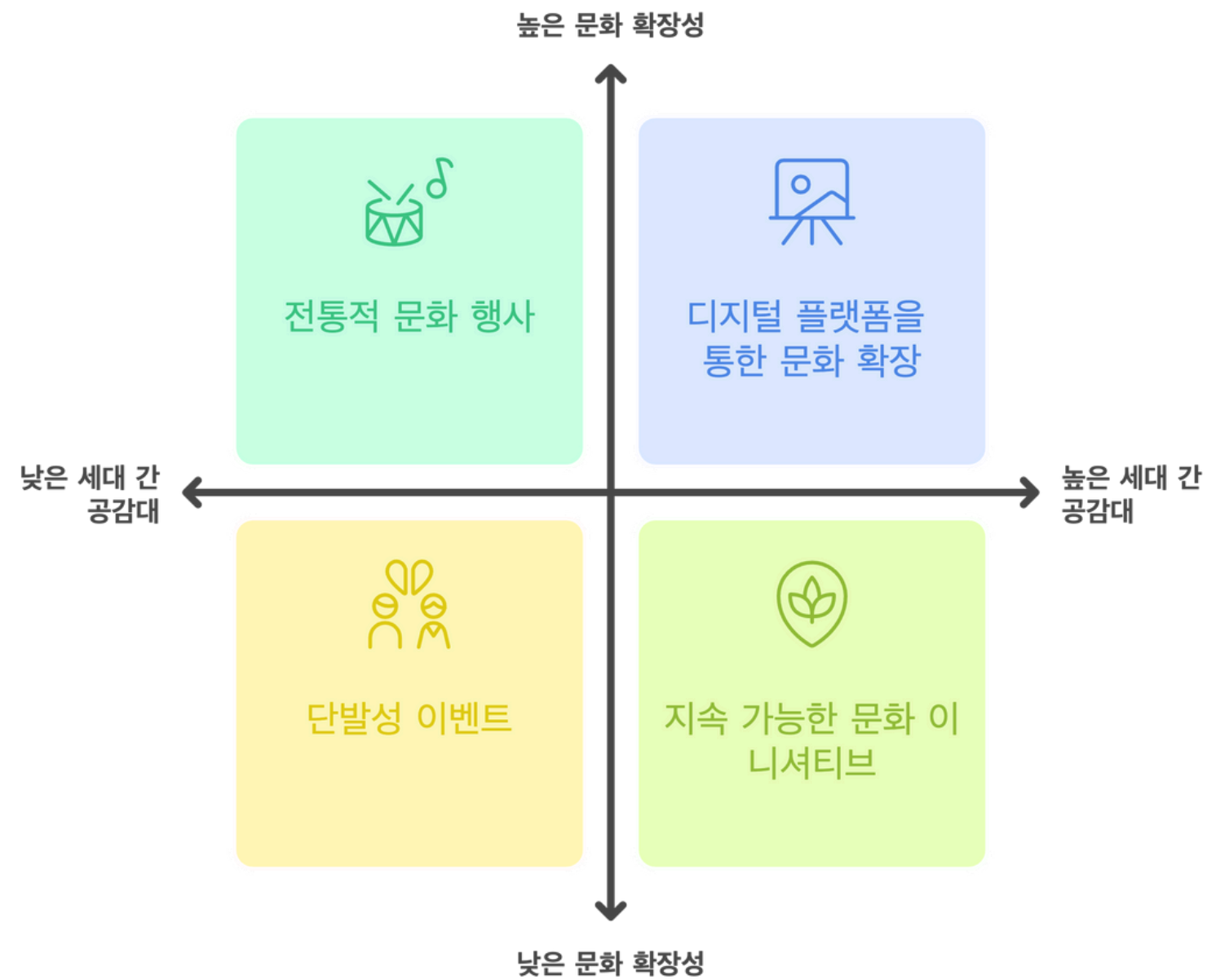
팔달문을 추억하는 흐름이 온라인에서도 감성적·문화적 욕구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됨. 검색 데이터가 보여주듯, 사람들은 그리움을 먼저 인터넷에서 탐색함.

- **디지털 아카이브:** 7080 시절의 수원 중앙극장, 음악다방 등 옛 사진을 수집·복원하여 공개하고, 그 시절을 기념하는 스토리나 인터뷰를 담은 디지털 콘텐츠를 운영함.
- **현장-온라인 연계:** 팝업스토어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할 때, 현장 영상을 SNS 라이브나 유튜브로 중계해 온라인 참여자를 확보함. 방문객의 사진·후기 등을 적극 공유해 “마이 데이즈 인 남문”이라는 현재적 콘텐츠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출 수 있음.



# 딥 다이브 각지뉴스

## 2. 뉴트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도시 플랫폼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공간에 확산시키면,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팔달문이라는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회자될 수 있음. 이는 상인들의 현실적 어려움(신규 투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방문객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유효한 전략임.

‘뉴트로’를 통한 7080 코드의 현대적 재가공은 향수 어린 레트로를 넘어,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점에서 가치가 큼. 부모 세대가 사랑했던 음악·패션·공간을 자녀 세대가 체험하고, 서로의 기억과 감성을 나누는 과정 자체가 도시가 품은 시간을 재발견하게 함.

- **세대 교차:** 중장년층의 발걸음을 다시 팔달문으로 돌릴 동기가 되고, 젊은 세대는 전에 없던 감성을 접할 신선한 기회가 됨.
- **지속 가능한 스토리텔링:**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절별·주말별로 테마와 스토리를 바꾸어 운영하면서 팔달문 일대가 가진 서사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음.

도시는 과거와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한 공간에 공존시키며 끊임없이 변주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냄. 팔달문 역시 단순한 향수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장(場)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품고 있음. 7080 세대가 간직해온 정서와 중장년층의 꾸준한 관심, 그리고 젊은 층의 ‘뉴트로’ 열망이 맞물릴 때, 팔달문은 시간이 빛어낸 깊이 있는 매력을 디지털·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시킬 수 있음.

결국, 팔달문 이야기는 과거에 멈춰 있지 않음. 데이터가 보여주듯, 사람들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팔달문을 찾고, 새로운 방식으로 그 추억을 누리고자 함. 이 관심을 현실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공공기관·문화기획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절한 투자와 아이디어를 나눌 필요가 있음. 그렇게 세대를 잇고, 기억과 현재가 교차하는 새로운 팔달문이 만들어질 때, 남문의 내일은 단순한 ‘옛것 복원’이 아니라 도시가 품은 시간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래 지향적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임.

# 데이터로 찾아낸 상권의 핵심 가치와 가능성

팔달산과 팔달문의 이야기는 계절·세대·취향을 넘나들며 도시가 품고 있는 다층적인 매력을 보여줌. 계절에 따라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팔달산은, 단순 관광 명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 일상적인 자연 공간이 되고 있음. 60대 이상을 비롯해 다양한 세대가 아침·저녁으로 팔달산을 오가며 산책하고, 그 발길이 행궁동과 경기도청옛 청사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은, 어반네이처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새로운 도시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한편 팔달문은 역사·문화 코드로서 오래된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에는 7080이라는 정서적 연결고리를 토대로 레트로나 뉴트로 문화로 재해석되는 양상을 보임.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중·장년층의 꾸준한 관심은, 팔달문이 그들에게 여전히 '청춘의 기억'을 품은 특별한 공간임을 보여주고 있음. 동시에 SNS와 젊은 세대의 문화적 트렌드는 장안문으로 대표되는 핫플레이스로 옮겨가고 있으나, 그 속에서 팔달문이 지닌 과거와 현재의 교차점으로서의 잠재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두 공간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면모는, 오히려 지역 상권과 문화가 다양한 사람들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팔달산을 중심으로 '도심 속 자연'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실버세대, 팔달문 일대에 깃든 7080 문화를 재발견하려는 중장년층, 장안문과 행궁동 일대에서 젊은 문화를 이끌어가는 MZ세대가 한 도시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임. 이들이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 수원시의 도심은 과거와 미래, 자연과 도시가 한데 어울리는 입체적 경험 공간으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님.

팔달산과 팔달문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과거의 향수와 도시 속 자연이 결합할 때, 도심이 얼마나 다채로운 매력을 얻는지 증명해 줌. 이 다채로움은 특정 세대나 계절에 한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세대와 계절을 초월해 더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힘으로 작용함. 팔달산에서 시작된 일상형 자연 체험과 팔달문이 간직한 7080 정서는, 현대 도시인이 바라는 삶의 균형과 문화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잠재력이 있음.

이러한 변화는 단숨에 이뤄지지 않음. 상인과 주민, 공공기관이 함께 전략적인 협업 모델을 구축해야 하고, 방문객과 세대별 요구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이터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함.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연·역사·삶이 중첩된 공간으로써 수원이 지닌 강점은 더욱 도드라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머물고 싶은 순간이 쌓이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임.

결국, 팔달산과 팔달문은 수원이 만들어갈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무대라 할 수 있음. 일상의 산책로와 7080 문화, 새로운 도시 라이프스타일과 레트로 감성이 어우러진 상권의 가능성은 이제 데이터가 아닌 현실로 발현될 준비를 마쳤음.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며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곳이, 도시가 간직한 가치를 일상에서 재발견하는 거점이 되길 기대함.

